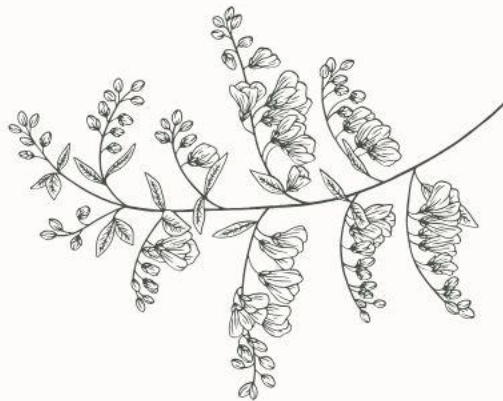




한국시 중역(重譯)의 문제점 : -크로아티아의 보조 쿠콜라 번역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 박사 과정

일리야스 아넬라 (Anela Ilijaš)

서론

-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학의 다양한 측면 즉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문학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그 중 한국 문학은 대중문화에 비하면 다소 관심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외국어로 번역되는 한국문학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한국학이 별도의 학문으로 존재하지 않고 한국어 번역가가 없는 국가의 경우는 한국문학을 번역할 때 중역(重譯)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상황에 놓여 있기 마련이다.
- 중역(重譯)은 A언어를 B언어를 거쳐 C언어로 번역하는 일이다.

서론

- 크로아티아의 경우는 아직 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력, 즉 한국어를 크로아티아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 한국어에 능통한 번역가의 부족함으로 인해 현재 크로아티아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그 중에 가장 오래된 한국 문학의 번역물은 1960년에 출판된 『Korejska poezija』 (한국 시)라는 시집이다.
- 크로아티아어로 번역된 유일한 한국시가의 시집이다.
- 이 시집의 번역가는 크로아티아의 문학 번역가이자 작가인 보조 쿠콜랴 (Božo Kukolja)였다.

서론

- 그러나 보조 쿠콜라는 원래 러시아어와 프랑스어 번역가였기 때문에, 한국 시의 시집을 완성하기 위해 주로 1956년에 러시아어로 출간된 시집 『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 (한국의 고대시가)』를 저본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 이 『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 (한국의 고대시가)』 시집은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국립대학 한국어학과 주임교수인 알렉사드르 홀로도비치를 중심으로 직역되었고, 그 직역본을 러시아 시인인 안나 아흐마토바가 시적인 번역을 위해 수정하기도 하였다.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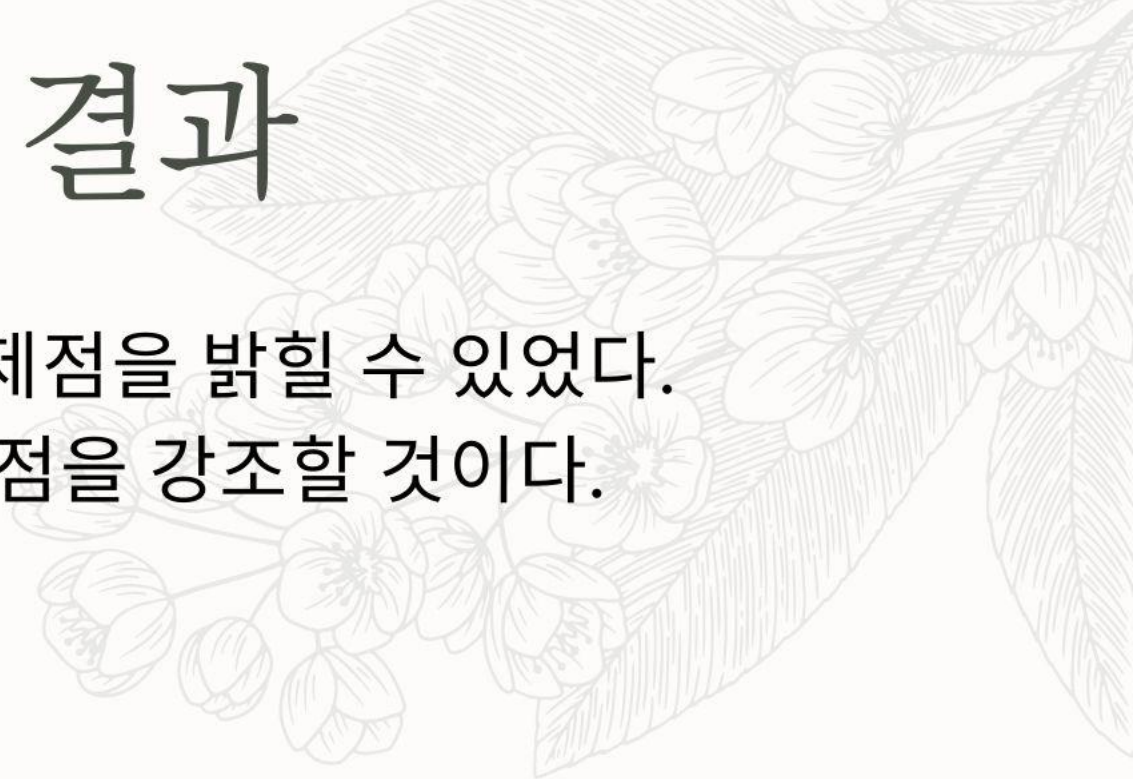
- 결국 보조 쿠콜랴의 『Korejska poezija (한국의 시)』는 러시아어 번역을 거치고 다시 러시아적 시풍을 입힌 것을 다시 크로아티아어로 번역하는 3단계 작업을 거친 결과물인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조 쿠콜랴의 『Korejska poezija (한국의 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번역의 문제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방법론

- 본 연구의 방법은 원시와 번역시를 비교 분석하여 오역과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 쿠콜랴가 스스로 실수를 했는지 러시아어 번역본의 오역을 그대로 번역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 분석에 러시아어 번역시도 포함하였다.
-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역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 비교분석 결과로 쿠콜랴 시집의 많은 문제점을 밝힐 수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 오늘 네 가지 문제점을 강조할 것이다.



1. 변경된 구조

- 쿠콜라의 번역시 구조는 원시와 일치하지 않는다.
- 즉 쿠콜라는 3장 형식의 정형시인 시조를 모두 6장으로 번역했다.

예:

간밤에 부던 바람 눈서리 치단 말가.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삼하리오.

유응부

(沈載完, 《歷代時調全書》, 1972.)

Prošle je noći padao snijeg,
Duvao vjetar i sipilo inje.
I čvrsta su borova stabla
Oborena sva nice.
A što tek da kažem o cvijeću,
Koje više ne će procvas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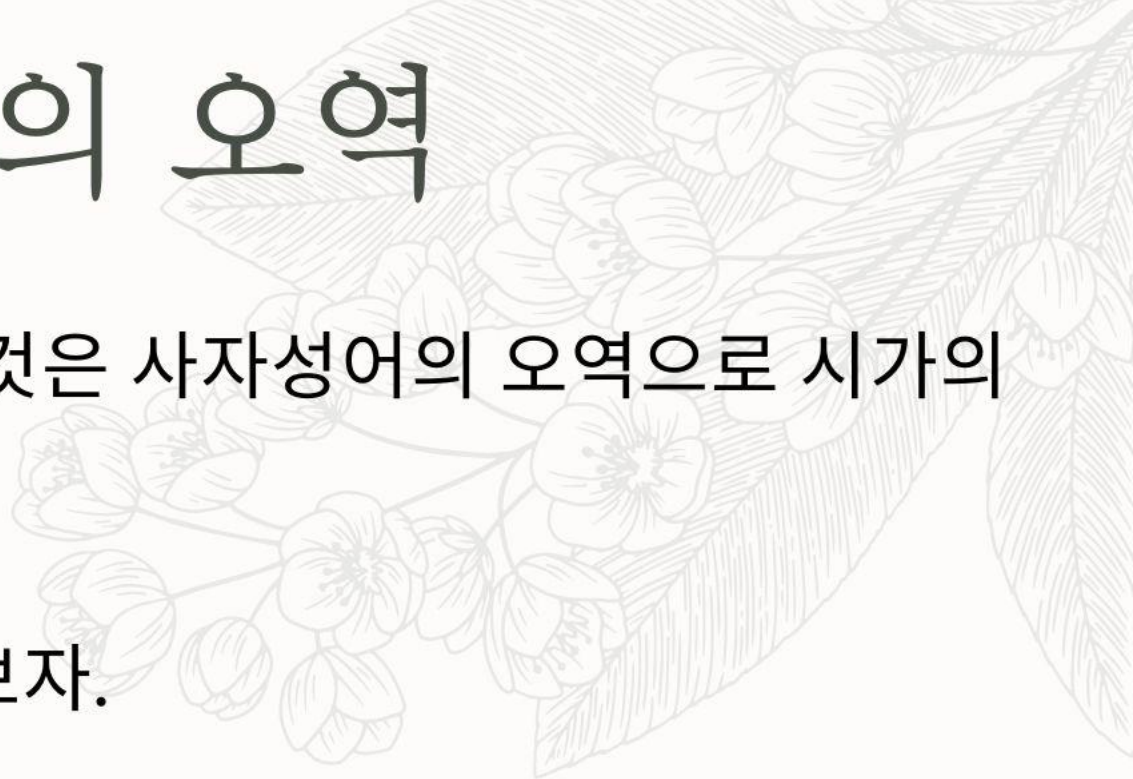
(Kukolja, B., Korejska poezija. 1960.)

1. 변경된 구조

- 가사, 한시, 고려가요의 경우도 쿠콜랴가 원시의 구조를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번역했다.
- 다른 문학 종류보다는 시가의 경우 구조가 가장 중대한 요소다.
- 많은 문학 번역가들은 시를 번역할 때 원시의 구조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다.
- 쿠콜랴의 번역시는 원시의 구조를 살리지 못해서 이러한 변경되버린 구조는 첫째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2. 사자성어의 오역

- 비교분석하면서 자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자성어의 오역으로 시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게 된 것이다.
- 이황의 시조와 쿠콜라의 번역시를 살펴보자.



2. 사자성어의 오역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로다
떼 만흔 갈머기는 오명가명 하거든
엇다다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머리 마음 하는고.

이황
(沈載完, 《歷代時調全書》, 1972.)

*희고 깨끗한 망아지; 성현(聖賢)이 타는 망아지

Ispred brda, gle, stoji sjenica,
A ispod sjenice protječe rijeka.
Jato galebova, bijelih kao snijeg,
Kruži i igra se nad vodom.
Optice! Zašto se vi nikada
Ne ćete poigrati sa mnom?
(Kukolja, B., Korejska poezija. 1960.)

직역:
봐요, 여기 산 앞에 정자가 있다.
그리고 그 정자 아래 강이 흐른다.
눈처럼 하얀 갈매기 떼가
원을 그리며 날고 물 위에 놀고 있다.
오, 새들아! 왜 나랑 절대
놀고 싶지 않아요?

2. 사자성어의 오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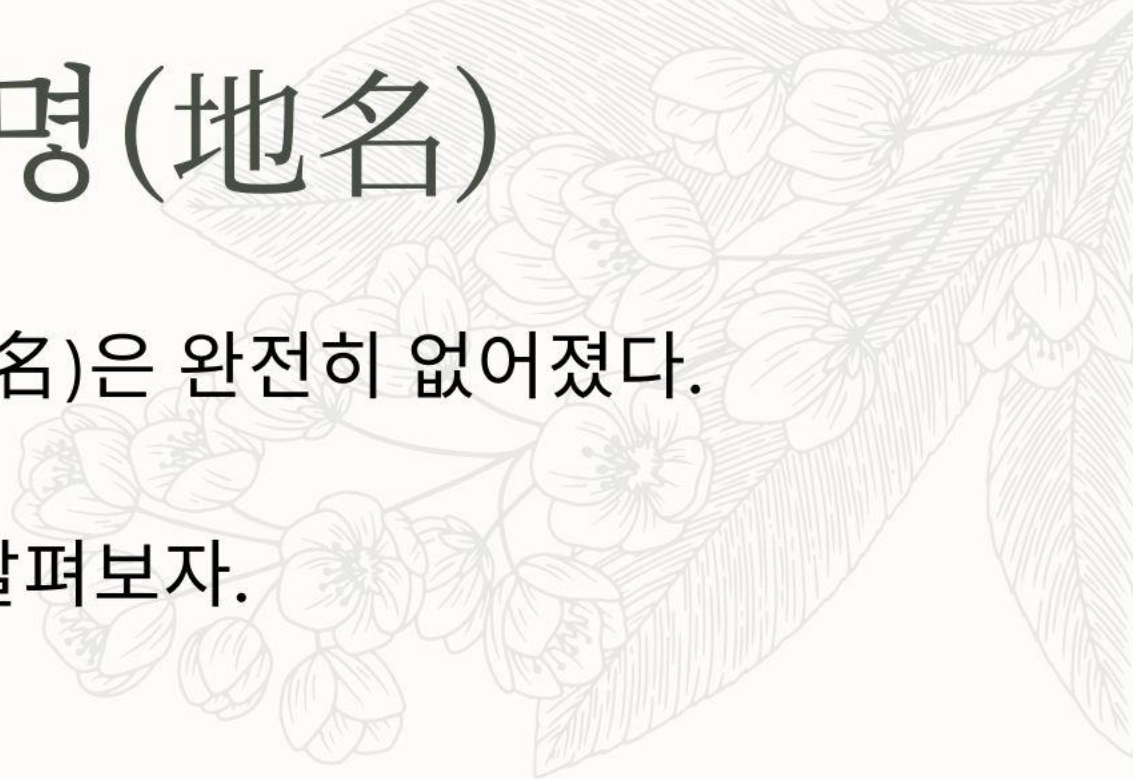
- 러시아어 번역을 준비한 홀로도비치의 실수라고 추측할 수 있다.
- 皎皎白駒의 駒 (구: 망아지)는 갈매기의 한자 鷗(구: 갈매기)와 같은 발음이 있으면서 비슷하게 생겨서, 홀로도비치는 중장(中章)에서도 나온 갈매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 그래서 그는 마음을 멀리 두는 것이 갈매기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는 종장(終章)을 갈매기가 시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시인의 슬픔으로 번역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2. 사자성어의 오역

- 쿠콜라는 러시아어 번역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같은 오역을 한 것이다.
- 쿠콜라의 번역시에서 사자성어가 오역된 것이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러시아어 번역의 오역으로 인한 것도 있고, 쿠콜라의 즉흥 번역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결과는 같다. 그런 이유로 크로아티아어로 번역된 시는 원시의 의미를 잃었다.

3. 없어진 지명(地名)

- 일부 번역시에서는 원시에 나온 지명(地名)은 완전히 없어졌다.
- 남이장군의 시조와 쿠콜랴의 번역시를 살펴보자.



3. 없어진 지명 (地名)

장검을 빼혀 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대명천지에 성진이 잠겼어라
언제나 남북풍진을 헤쳐 볼까 하노라

남이장군
(沈載完, 《歷代時調全書》, 1972.)

Na vrhu brda stojim sam

Sa golim mačem u ruci.

Listiću s drveta - Korejo moja!

Stisnuta između dvaju neprijateljskih plemena,
Kada, o kad ćemo mi

Raspršiti prašinu sa sjevera i juga.

(Kukolja, B., Korejska poezija. 1960.)

직역:

언덕 꼭대기에 홀로 서 있다

검을 손에 든 채로.

나무의 잎사귀 - 나의 한국!

적대적인 두 부족 사이에 갇혔다.

언제, 아, 우리는 언제

북쪽과 남쪽에서 먼지를 떨 수 있을까?

3. 없어진 지명 (地名)

- 원시에서 언급한 백두산은 한반도의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리적 의미가 있다.
- 시인은 자신이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가 전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쿠콜라 번역시에서는 그것은 단지 언덕일 뿐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 곳이 얼마나 높고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 크로아티아 독자들은 백두산을 모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지명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백두산에 대한 설명역을 넣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었을 것이다.

4. 역사적 배경 설명의 부재

- 대부분의 한국 시가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 이는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에 의해 쓰여지거나 병자호란 혹은 임진왜란 등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작품들이 있다.
- 이러한 시가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시가의 원래 의미가 사라진다.
- 홍서봉의 시조와 쿠콜랴의 번역시를 살펴보자.

4. 역사적 배경 설명의 부재

이별(離別)하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 만지
압록강(鴨綠江) 내린 물이 푸른빛이 전혀 없네
배 우에 허여센 사공(沙工)이 처음 보좌 하더라.

홍서봉
(沈載完, 《歷代時調全書》, 1972.)

Pa zar su se vode Amnokkana
Zato prestale plaviti,
Što je u času našega rastanka
Iz mojih očiju potekla krv?
I reče sjedokosi veslač:
“Svašta vidjeh na svijetu, ali ovako nešto doista prvi
put!”
(Kukolja, B., Korejska poezija. 1960.)

직역:
압록강의 물이
파란색을 잃은 것은
우리가 헤어지는 순간에
내 눈에서 피가 떨어졌기 때문이었나?
그러자 백발의 사공이 말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봤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다!"

4. 역사적 배경 설명의 부재

- 이 시조는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에 소현세자, 봉림대군(효종) 등이 볼모로 심양(瀋陽)에 잡혀가는 처지에서 그 비애와 민족적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 그러므로 시조에서 언급된 '이별'은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및 척화파로 인질이 되어 잡혀가는 이들과의 사이에서 겪는 이별이었다.
- 다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설명 없이 쿠콜라의 번역시는 두 연인이 헤어지는 것에 대한 시처럼 보인다.
- 이 시조 외에도 많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시가들은 쿠콜라 번역에서는 그냥 연애시처럼 보인다.
- 한국어로 된 고전시가 시집에 역사적 설명이 추가되는 것처럼 번역시 시집에도 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적 설명역주가 꼭 필요하다.

결론

-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중역 때문에 많은 오역이 생기고, 작품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독자들이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도 많다.
- 그래서 양질의 문학 번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역이 아닌 직접 번역(direct translation)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보조 쿠콜라의 번역시 사례를 통해 한국어와 대상 언어의 문화 차이가 너무 클 때 한국의 문학 작품을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지리, 신화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질 수 있다.
-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 시의 해외 번역의 질이 높아지고 중역보다 직접 번역의 경우가 많아지길 바란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